

3세대 모녀의 아동기 신체학대와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 아동기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남 순 현¹⁾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모와 자녀간의 병리적인 상호작용방식은 부모와의 왜곡된 관계로 인해 결혼파괴, 아동학대 및 정신질환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 폭력이 폭력을 낳는 것처럼, 아동기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는 성인이 되어 자녀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되짚어보고, 아동기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통해 3세대 모녀간의 아동기 신체학대와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여아와 그의 어머니 220쌍이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08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다. 연구참여자인 여아와 어머니가 자신이 지각하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3세대 모녀간의 가족분화수준, 아동기 신체학대 경험, 아동기 공격성 및 아동기 비행 등을 탐색하였다. 3세대 모녀간 아동기 신체학대의 세대간 전수과정과 아동기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AMO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가설모형을 검증한 결과, 아동기 신체학대는 세대간 전수될 뿐만 아니라 3세대에 걸친 아동기 신체학대가 여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때 아동기 공격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아동학대를 경험한 여아는 어머니의 신체학대에 대응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직접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신체학대가 아동기 공격성으로 내면화되어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학대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 자녀학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수의 심각성을 암시해준다.

주요어 : 3세대, 아동기 신체학대, 세대간 전수, 가족분화수준, 아동기 공격성, 아동기 비행

* 본 논문은 2008년도 호남대학교 교내공모 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1) 교신저자 :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Email : shnam@honam.ac.kr)

대선과 각종 사회·정치 문제가 TV화면을 달구던 2008년도 1월초 우리를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비정한 의모에 의해 살해된 우영진군 실종사건이 그것이다. 의모의 손에 폭행당하고 살해된 후 포장용기에 담겨 경주 냉천리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경향신문, 2008. 1. 13). 이처럼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가족 내에서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불과 5년 사이에 2.5배 급증했고, 학대행위자의 수는 2006년 5,000명을 넘어섰다(KBS뉴스, 2007. 11. 19). KBS보도(2007. 11. 19)에 따르면, 특히 피해아동의 절반정도는 거의 매일 학대를 당한다고 답해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려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문제 제기는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는 SBS 긴급출동! SOS 24(파이미디어, 2005. 12. 21)에서도 그 심각성을 확연히 드러냈다. 즉, 7년 전 남편과 이혼한 어머니의 학대가 12세 어린 아이의 거침없는 욕설과 폭력으로 이어진 것이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드러난 아동의 폭력성보다도 어머니의 학대정도다. 피학대아의 어머니는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아동에게 수시로 폭력을 휘둘렀고, 직장에 나갈 때는 뒷산 나무에 밤늦도록 아이를 묶어놓기도 했었다. 따라서 어린 시절 아동에게 가한 어머니의 학대가 지금 아동의 폭력을 낳은 셈이다.

1. 아동기 신체학대

학대받았다는 것과 학대부모가 된다는 것 간에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Wisdom, 1989), 아동기 학대경험과 성인기 자녀학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Cicchetti & Aber, 1980; Herzberger, 1983)는 이를 지지한다. Loos와 Alexander(1997)는 아동기 부모로부터 신체학대, 언어학대, 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학생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에 관한 연구에서, 특히 신체학대를 받았던 아동은 성인기에 분노, 공격성과 같은 성격특성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정서학대가 더 급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동학대 연구가 가족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신체학대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이다.

미국 아동학대 예방센터(1997)의 보고에 따르면, 매년 약 2백 90만명의 아동학대 및 방치사례가 접수된다고 한다. 보고되지 않은 수치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수는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어떤 곳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 신체적으로 모욕당하고, 매 맞고, 죽음을 당하고 있다(Gelles & Straus, 1988).

신체학대는 부모나 아동양육에 책임이 있는 성인이 우발적으로 신체적 폭행을 가한 결과 아동에게 손상이 생겼거나, 반복적·계속적으로 구타를 가하거나, 아동의 나이나 제반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훈련을 시키는 경우를 말한다(고성혜, 1992; 김미경, 1988). 협의의 의미에서 아동학대는 신체학대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학대라고 칭할 때는 주로 신체학대를 일컫는다. 신체적 학대는 피해자의 신체적 통합에 공격하는 신체적

폭행 또는 행동패턴을 나타낸다. 받아들이 수 있는 부모의 벌과 학대사이, 어디에 선을 긋느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상해를 가져오는 벌주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학대로 정의된다. 따라서 해로운 행동패턴을 나타내거나 아주 심각한 신체적 폭행도 역시 신체학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Kemp, 2001).

부모가 아동을 신체학대하는 원인에는 빈곤, 가족문제, 사회 및 경제적 지위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아동학대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면적인 아동학대의 현상을 충분히 설명해주는 하나의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부모, 아동, 가족, 지역사회와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다각적으로 이해하여야만 한다.

2. 가족분화수준

가족분화(family differentiation)는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유형에 대한 심리적 거리로 규정할 수 있다(남순현, 2000; 남순현, 한성열, 2001; 남순현, 한성열, 2002; 남순현, 한성열, 2003; Anderson & Sabatelli, 1990; Anderson & Sabatelli, 1992). 가족체계이론가들은 모든 가족은 가족분화수준에 따라 특징 지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Minuchin, 1974; Bowen, 1978). 잘 분화된 가족구성원들은 가족체계 내에서 분리성과 연결성의 균형잡힌 대인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고, 잘 분화되지 않은 가족구성원들은 밀착되거나 이탈된 두 극단의 거리조절유형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밀착된 거리조절유형을

보이는 가족구성원들은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지나친 정서적 융합의 결과로,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의 방해를 받는다. 이탈된 거리조절유형을 보이는 가족구성원들은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지나친 정서적 단절로 인하여, 개인의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정서적 연결성을 방해받는다(Anderson & Sabatelli, 1992; Sabatelli & Anderson, 1991). 이는 학대자와 피학대자의 가족기능을 적응력과 응집력(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의 두 차원에서 측정한 연구결과(Carnes, 1989)에서 지지되었고, 극단적인 가족유형 내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분화수준과 가족기능간의 관계를 통해 연구자들(Anderson & Sabatelli, 1990; Anderson & Sabatelli, 1992; Gavazzi, 1993)은 가족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수록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이는 반면, 역기능적인 가족일수록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인다고 하였다.

3. 공격성과 비행

아동의 학대경험은 아동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신체학대는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아동의 공격성으로 내면화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일반 정상아동에 비해 학습된 공격행동을 많이 보인다(김광일, 고복자, 1987; 김정준, 1987; 최윤라, 1988; Erlanger, 1974). 뿐만 아니라 가정 내 폭력상황에 직면할 때, 여아는 폭력상황에 대한 적개심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고 안으로 삭히면서 지연시키는 데 반해, 남아는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통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임으로써(조미숙,

이윤로, 1999), 아동이 공격성을 내면화하는 과정에는 성차를 보였다.

신체학대 경험은 다른 학대형태와 달리, 외형적 폭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학대경험 자체가 관찰학습이 되는 경향이 있다(이주연, 1995). 즉,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정서학대를 받은 아동에 비해 또래에게 더 많은 공격행동을 보였다(이주연, 1996; George & Main, 1979). 이런 모방학습의 결과는 청소년기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Famularo(1990)는 비행자와 범법자의 45%가 성장기에 부당한 대우나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고, 조주연(2004)은 성장기에 신체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가출경력이 7배정도 높다고 하였다. 즉, 신체학대와 비행이나 폭력 범죄율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소녀비행의 증가와 더불어 비행행동이 청소년기에 만성화되어 사회문제화 되기 전에,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여아를 중심으로 아동기에 보일 수 있는 반사회적 문제행동이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학대 경험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세대간 전수

문화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가족의 신념, 가치, 규칙 및 상호작용방식은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 많은 연구자들(Kaufman & Zigler, 1987; Kaufman & Zigler, 1989; Landes, Siegel, & Foster, 1993)은 학대받고 자란 아이가 학대부모가 될 가

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가족 내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수과정(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은 전국가족폭력조사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과거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모두 학대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부모의 대부분이 과거에 학대받은 경험을 갖고 있었다(Gelles & Cornell, 1990). 따라서 학대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전수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족 내 학대의 다세대간 전수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Martin과 Elmer(1992)는 아동기 때 심한 신체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3년간 종단연구를 한 결과, 그들이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일부만이 가족부양, 취업, 사회적 관계유지에서 잘 기능한 반면, 대부분은 가족부양, 취업, 사회적 관계유지에서 어려움을 보였다. 따라서 학대경험이 있는 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의심과 분노표출을 통제하지 못하는 성격문제 등을 보였다. 즉, 이런 성격특성은 자연스럽게 자녀와의 관계에서 표출될 것이고, 자녀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Smith(1995)는 컴퓨터에 있는 여성의 가족을 연구한 결과, 구타자의 약 53%가 부모의 구타를 직접 목격했고, 이보다 약간 적은 수가 어렸을 때 직접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Kaufman과 Zigler(1987, 1989)는 자녀를 학대한 사람들의 약 30%정도가 어린 시절에 동일한 학대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즉, 한 개인이 폭력을 목격하거나 학대받는 경험은 학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동기 신체학대는 학대의 특성상 성인이 되어 학대자가 될 폭력성과 학대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는 셈이다.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수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학습이론적 관점과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왔다. 1950년대 초, Bandura와 Walters(1963)는 공격성이 어떻게 학습되는가에 관심을 갖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오늘날 사회학습이론이라 불리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즉, 지금은 고전이 된 통제된 실험에서 그들은 아동이 타인의 행동을 보고 모방함으로써 공격행동을 배울 수 있고 배운다는 것을 증명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일차적인 모델이며 모델이 되어야 하지만, 불행히도 아동학대 경험은 그 모델이 학대적이고 공격적이다. 특정한 역할모델을 습득하지 못하고 성장한 부모는 스트레스상황에서 아동학대를 범하기 쉽다. 특히 신체학대는 다른 학대유형과는 달리, 외형적 폭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학대경험이 관찰학습되어 개인의 공격적인 성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이주연, 1996).

한편,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수에 관한 가족체계적 관점은 가족 내 변화에 대한 저항과 고통의 양 측면에서 아동학대를 고려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역기능적 가족은 가족구성원간의 지지가 부족하고 긍정적 의사소통이 적으며 적대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보인다(Milner & Crouch, 1993).

Bowen(1978)은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수를 일종의 가족투사과정(family projection process)으로 보았는데, 가족투사과정이란 어떤 세대에서 충족되지 않은 자기분화에 의해 야기된 불안을 다음 세대의 희생양과 융합하려는 움직임으로써, 다세대간 가족구성원이 병리적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불안을 세대간 전수

하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반복은 ‘학습’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이나 ‘불안’이나 ‘양육방식’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전수되며, 한 개인의 병리현상은 이전 세대가 현 세대에 전수한 정서적 융합의 결과이다(Gurman & Kniskern, 1991). 즉, 현재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가족관계유형은 원가족 안에서 습득한 가족경험의 반복이다(Boszormenyi-Nagy & Ulrich, 1981; Bowen, 1978). 따라서 과거 원가족과의 역기능적 가족분화수준과 가족 내 학대경험은 다음 세대에도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세대간 전수된다.

5.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신체학대는 자녀양육이라는 미명하에 체벌과 분리되지 않은 채 가족 안에서 공공연히 자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아동학대자의 유형을 살펴보다도, 2003년에 친부에 의한 학대가 1,907건, 친모에 의한 학대가 651건으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학대의 66%를 차지했다. 2006년도에는 친부가 2,739건, 친모가 1,321건으로 친모에 의한 학대전수가 2배로 증가했다. 따라서 자녀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에 의한 신체학대는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동학대 연구는 자녀 학대경험의 심각성과 학대경험이 야기하는 심리내적인 영향에 대해 횡단적인 초점을 맞춘 것이 사실이고, 모녀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학대가 학대를 낳는다는 악순환의 세대간 전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실증적 연구를 간과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청소년기로 전이되는 발달시기에 놓여있는 아동기 후기,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은 신체학대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5, 6학년) 여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어머니, 할머니 3세대간의 아동기 신체학대와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어릴 때 여아의 아동학대, 특히 신체학대를 받은 경험이 모와의 관계, 특히 가족분화수준에서 여아의 공격성으로 내면화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공격성의 표출이 자녀학대로 이어지는지를 탐색해봄으로써, 가족 내 다세대간 아동학대의 부적 영향의 심각성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세대간 대물림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은 연구가설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세대 모녀의 아동기 신체학대와 가족분화

수준이 여아의 아동기 비행에 영향을 때, 공격성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여아와 여아의 어머니 220쌍(총 440명)이다. 여아의 평균연령은 11.44세($SD=.97$ 세)였고(5학년 78명, 6학년 142명),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41.2세($SD=13.23$ 세)였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08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고, 설문지는 일반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담임교사들에게 충분히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수업시간에 양해를 구하여 초등학교 5, 6학년(만 11세-12세) 여아 300명에게 무작위로 실시되었다. 여아의 어머니에게는 동일한 목적의 연구 설문지(여아와 일련번호가 동일한 어머니용 설문지)를 봉투에 밀봉하여 전달하였고, 여아의 어머니가 설문지를 실시한 후 여아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을 택했다. 배포된 300세트의 설문지 중 총 249세트가 회수되었고, 무응답이 많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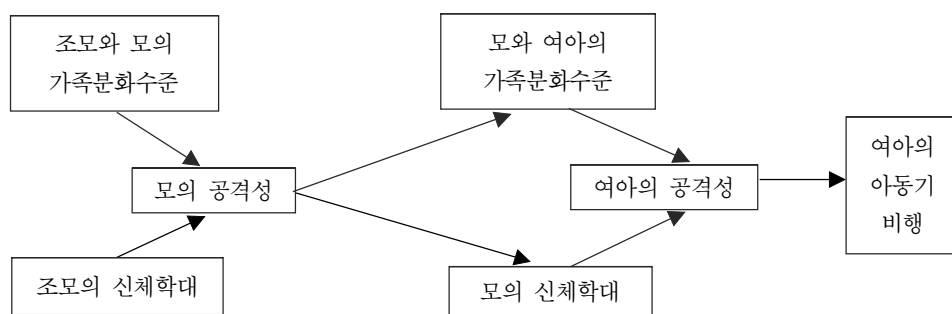


그림 1. 3세대 모녀의 아동기 신체학대와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에 관한 연구가설모형

편포된 응답을 한 29세트의 설문지를 제외한 220세트의 자료만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가족분화척도

본 연구에서는 조모와 모, 모와 여아의 가족분화수준을 알기 위해서 Anderson과 Sabatelli (1992)가 개발한 가족분화척도(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 DIFS)를 남순현과 한성열(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하위체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족분화점수는 5에서 55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조모와의 관계에 대해, 여아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나는 어머니의 견해가 내 견해와 다르더라도 존중한다.’, ‘나는 어머니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등과 같은 문항에 답해야 한다. 조모와 모의 가족분화수준은 모의 행동에 대한 조모의 지각점수와 조모의 행동에 대한 모의 지각점수 각각의 총 점수를 곱한 것이고, 모와 여아의 가족분화수준은 여아의 행동에 대한 모의 지각점수와 모의 행동에 대한 여아의 지각점수 각각의 총 점수를 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모와 모의 하위체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2$ 였고, 모와 여아의 하위체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신체학대척도

본 연구에서는 여아가 지각하는 모의 신체학대와 모가 지각하는 조모의 신체학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1979)가 제작한 CTS

(Conflict Tactics Scale)의 폭력척도를 연진영(1992)이 우리나라 아동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아동용 신체학대 척도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신체학대척도 문항에는 ‘손바닥, 팔, 다리, 엉덩이 등을 맞았다’, ‘몽둥이나 굵은 막대기로 맞았다’, ‘방, 다락, 창고 등에 갇혔었다’ 등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이고, 본 연구에서 모의 신체학대에 관한 문항들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조모의 신체학대에 관한 문항들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공격성척도

모와 여아의 아동기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Buss와 Durkee(1957)가 개발한 공격성척도를 노안녕(198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문항에는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결코 물건을 던지지 않는다.’, ‘누가 먼저 나를 때린다면 나도 때리겠다.’ 등이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서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모가 지각하는 아동기 공격성에 관한 문항에서 Cronbach's $\alpha = .81$, 여아가 지각하는 아동기 공격성에 관한 문항에서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아동기 비행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비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곽금주와 문은영(1993, 1995)이 제작한 청소년 비행척도를 남순현과 최희경(2005)이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아동기 비행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기 비행척도는 아

동기에 나타날 수 있는 비행행동과 관련된 2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이다. 본 척도는 일시적 호기심(예,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 도피행동(예, ‘무단결석을 해본 적이 있다’), 사회적 질서파괴(예, ‘공공 장소에 있는 기물을 함부로 다루어 파손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기물을 파손시킨 적이 있다’) 및 집단폭력(예, ‘불량친구와 어울려 다닌 적이 있다’)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일시적 호기심에서 Cronbach's $\alpha=.85$, 도피행동에서 Cronbach's $\alpha=.87$, 사회적 질서파괴에서 Cronbach's $\alpha=.74$, 집단폭력에서 Cronbach's $\alpha=.71$ 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SPSS WIN 14.0 program을 사용하였다.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및 내적 일치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가설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Pearson적률상관분석, 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통해서 각 변인간의 관련성과 인과관계를 파악한 후, AMO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가설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연구결과

1. 가족분화수준, 신체학대 및 아동기 비행간의 관계

연구가설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모와 여아의 가족분화수준과 모의 신체학대가 여아의 아동기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AMOS의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2와 표 1과 같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녀간 가족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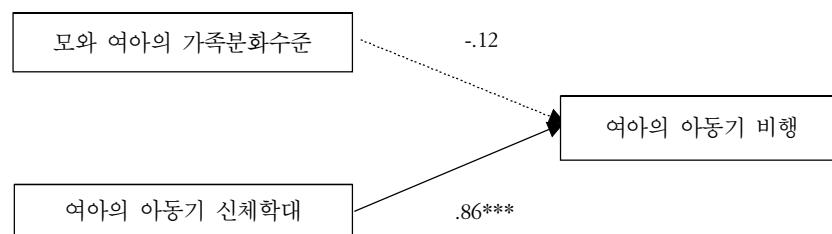


그림 2. 모녀의 가족분화수준과 모의 신체학대가 여아의 아동기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유의미, - - - - -> 무의미, *** $p<.001$)

표 1.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

부합도 지수	GFI	AGFI	RMR	RMSEA	CFI
추정치	.922	.887	.035	.014	.995

화수준은 여아의 아동기 비행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유의하지 않았고($\beta = -.12, p > .001$), 모의 여아에 대한 아동기 신체학대는 여아의 아동기 비행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beta = .86, p < .001$). 모와 여아의 가족분화수준과 여아의 아동기 신체학대는 여아의 아동기 비행 변량의 8%를 설명하였다($F = 18.48, p < .001$). 모와 여아의 가족분화수준, 모의 신체학대 및 여아의 아동기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은 표 1에서처럼, 비교적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부합치로 널리 사용되는 GFI와 비교부합치 CFI 값이 각 .922와 .995로 일반적 수용준거 .09를 넘었으며 (Bentler & Bonett, 1980), RMR과 RESEA 값 역시 일반적 수용준거인 .0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GFI의 경우 일반적으로 좋은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인 .90을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모녀의 신체학대와 아동기 비행간의 관계

모녀의 신체학대가 세대간 전수되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 모에 대한 조모의 아동기 신체학대, 여아에 대한 모의 아동기 신체학대가 여아의 아동기 비행에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가 조모로부터 받은 신체학대는 어머니가 여아의 아동기에 가하는 신체학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8, R^2 = .13, F = 17.23, p < .001$). 이는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수를 시사한다. 또한 여아가 어머니로부터 아동기에 받은 신체학대는 여아의 아동기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6, R^2 = .08, F = 18.82, p < .001$). 표 2는 그림 3에 대한 가설적 구조방정식의 모형부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AGFI만 일반적 수용준거 .90을 넘지 못했고, 일반부합치 GFI와 비교부합치 CFI는 일반적 수용준거 .09를 넘었으며, RMR과 RESEA 역시 일반적 수용준거인 .05보다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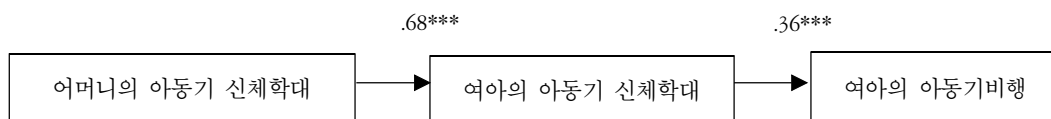


그림 3. 모녀의 아동기 신체학대가 여아의 아동기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유의미, ...> 무의미, *** $p < .001$)

표 2.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

부합도 지수	GFI	AGFI	RMR	RMSEA	CFI
추정치	.954	.885	.038	.029	.902

3. 3세대 모녀의 아동기 신체학대와 가족분화 수준의 세대간 전수: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3세대 모녀의 아동기 신체학대의 세대간 전수에서 공격성 매개효과에 관한 그림 1의 연구가설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3세대 모녀의 각 변인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모와 모의 가족분화수준은 조모의 신체학대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지만($r = -.09$, $p > .01$), 모의 공격성에는 유의한 부정적 상관을 보였다($r = -.16$, $p < .01$). 조모의 신체학대는 모의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34$, $p > .01$), 모의 공격성은 여아의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20$, $p < .01$). 모와 여아의 가족분

화수준은 모의 신체학대에 유의한 부정적 상관을 보였다($r = -.15$, $p < .01$), 여아의 아동기 비행 중 도피행동과 사회질서파괴에 유의한 부정적 상관을 보였다($r = -.22$, $r = -.14$, $p < .01$). 모의 신체학대는 여아의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27$, $p < .01$), 여아의 아동기 비행 중 일시적 호기심, 사회질서파괴 및 집단폭력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30$, $r = .18$, $r = .39$, $p < .01$). 여아의 공격성은 여아의 아동기 비행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일시적 호기심에 $r = .28$, 도피행동에 $r = .15$, 사회질서파괴에 $r = .17$, 집단폭력에 $r = .30$ 으로 $p <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림 4와 표 4는 3세대 모녀의 아동기 신체학대와 가족분화수준이 세대간 전수될 때 공

표 3. 3세대 모녀의 가족분화수준, 신체학대, 공격성 및 아동기 비행간의 관계

	1 조모-모 가족분화	2 조모->모 신체학대	3 모의 공격성	4 모-여아 가족분화	5 모->여아 신체학대	6 여아의 공격성	7 여아의 아동기 비행			
							7-1 일시적 호기심	7-2 도피 행동	7-3 사회질 서파괴	7-4 집단 폭력
1	1.00									
2	-.09	1.00								
3	-.16*	.34**	1.00							
4	.19*	-.01	-.02	1.00						
5	-.07	.08	.11	-.15*	1.00					
6	-.03	.13	.20**	-.01	.27**	1.00				
7-1	-.09	-.05	.05	-.09	.30**	.28**	1.00			
7-2	-.07	.04	.10	-.22**	.10	.15*	.06	1.00		
7-3	.00	.00	.05	-.14*	.18**	.17*	.28**	.37**	1.00	
7-4	-.10	.10	.05	-.08	.39**	.30**	.42**	.07	.26**	1.00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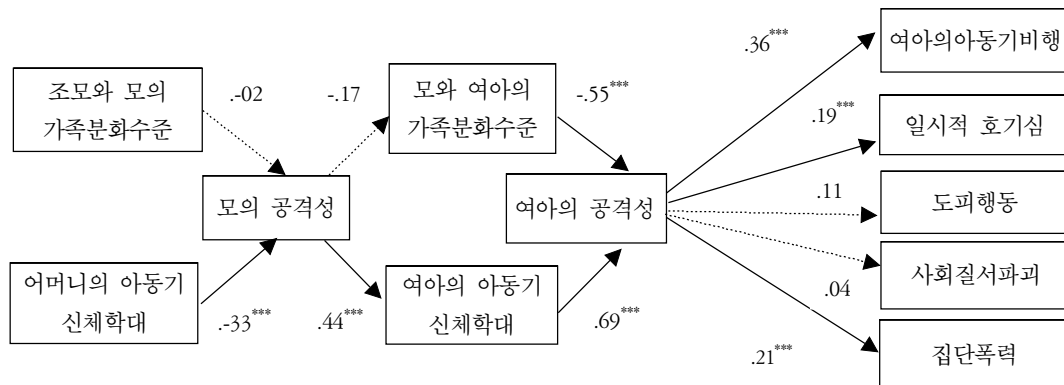


그림 4. 3세대 모녀의 아동기 신체학대의 세대간 전수과정의 공격성 매개효과검증

(—————> 유의미, ...> 무의미, *** $p < .001$)

표 4.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

부합도 지수	GFI	AGFI	RMR	RMSEA	CFI
추정치	.938	.877	.046	.016	.967

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그림 4는 조모와 모의 가족분화수준이 모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beta = -.02$, $p < .001$), 모의 공격성도 모와 여아의 가족분화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beta = -.17$, $p > .001$), 모와 여아의 가족분화수준은 여아의 공격성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beta = -.55$, $p < .001$), 여아의 공격성은 여아의 아동기 비행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6$, $p < .001$). 한편, 어머니에 대한 조모의 신체학대는 모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 = .33$, $p < .001$), 모의 공격성은 여아에 대한 어머니의 신체학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 = .44$, $R^2 = .08$, $F = 18.82$, $p < .001$), 여아에 대한 어머니의 신체학대는 여아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 = .69$, $p < .001$), 여아의 공격성은 여아의 아동기 비행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beta = .36$, $p < .001$), 3세대 모녀의 신체학대가 세대간 전수될 때 공격성이 매개효과를 보였다. 또한 여아의 내재된 공격성은 일시적 호기심($\beta = .19$, $p < .001$)이나 집단폭력($\beta = .21$, $p < .001$)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모와 모의 가족분화수준과 모의 아동기 신체학대는 모의 공격성을 3% 설명하였고($F = 7.19$, $p < .01$), 선행변인들은 모와 여아의 가족분화수준을 2% 설명하였고($F = 4.98$, $p < .05$), 여아의 아동기 신체학대를 9% 설명하였다($F = 22.93$, $p < .01$). 선행변인들은 여아의 공격성을 19% 설명하였고($F = 26.43$, $p < .001$), 여아의 아동기 비행을 7% 설명하였다($F = 18.48$, $p < .01$).

표 4의 모형부합도 지수는 그림 4의 AGFI만을 제외한 모든 모형부합도 지수가 일반적 수용준거에서 적합하게 나타남으로써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이 양호함을 입증했다

논 의

본 연구는 3세대 모녀의 아동기 신체학대의 세대간 전수과정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봄으로써,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수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여아가 공격성을 내면화하여 문제행동, 특히 소녀비행을 범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세대과정(generation process)은 가족 안에서만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이다. Burr, Day 및 Bahr (1993)는 가족구성원들이 행동하고, 느끼고, 관계를 맺는 방식 및 구성원들 상호간의 친근감이나 거리감에 대처하는 양식은 한 세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부모와 자녀간의 건강한 상호작용 방식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구속하지 않는 결속력, 강압적이지 않은 친밀감 및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 부모와 자녀간의 병리적인 상호작용 방식은 부모와의 왜곡된 관계로 인해 결혼 파괴, 아동학대 및 정신질환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어린 시절 학대경험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기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즉, 아동학대는 자녀학대로 전수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신체학대와 가족분화수준의 세대간 전수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첫째, 모와 여아의 가족분화수준과 모의 신체학대가 여아의 아동기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고, 둘째, 3세대 모녀의 아동기 신체학대의 세대간 전수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셋째, 3세대 모녀의 신체학대의 세대과정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았다.

첫째, 모와 여아의 가족분화수준과 모의 신체학대가 여아의 아동기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가족 내 세대간 전수를 설명하는 사회학습이론과 가족 체계적 관점에 따라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를 관찰한 여아가 부모와의 정서적 역기능 속에서 소녀비행의 문제행동을 야기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모와 여아의 정서적 역기능은 여아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모의 신체학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학대 중에서 특히, 신체학대와 같은 경우는 부모자녀관계의 가족체계의 역동성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폭력행동 관찰이 그대로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둘째, 3세대 모녀의 신체학대의 세대간 전수과정을 살펴본 결과, 조모의 신체학대는 모의 신체학대로, 모의 신체학대는 여아의 아동기 비행으로 세대간 전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Martin과 Elmer(1992)의 종단 연구를 지지해준다. 그는 232명의 남성을 40년간 종단 추적한 결과,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했다. 232명 남성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사랑받은, 거부된, 학대받은, 방임된 아동집단으로 분류하여 종단 연구한 결과, 아동기 때 신체적으로 학대받고, 방임되고, 거부 받았던 남성들이 사랑받은 집단보다 알코올중독, 정신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다.

마지막으로, 남아와 달리 신체학대를 받은 여아가 자신의 공격성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내면화한 후 문제행동으로 표출하는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역시 연구가설모형이 적합함을 시사했다. 본 연구는 Rutter(1970)와 Hetherington 등(1979)은 아동이 가정 내 폭력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여아는 폭력상황에 대한 적대심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고 안으로 삭히면서 지연시키는데 반해, 남아는 자신이 처해있는 즉각적인 상황을 통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조미숙, 이윤로 1999 재인용)고 한 신체학대에 관한 성차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여아의 공격성은 일시적 호기심이나 집단폭력과 같은 비행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아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남아와 여아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충격적인 잔인한 범죄, 폭력, 이기심, 전쟁은 근본적으로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야기된 학대경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의 도덕성 발달과정에서 부모의 지나친 규제와 박탈로 인하여, 도덕성을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내면화하거나 지나치게 비도덕성을 유발하게 되면, 이는 아동의 일탈행동이나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Kaufman과 Cicchetti(1989)는 5-11세 학대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비교한 결과, 학대받은 아동이 낮은 자긍심을 보이고 친사회적 행동을 덜 보인 반면, 높은 공격성과 위축된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Wissow와 Roter(1994)는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는 단기적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 부모 자녀관계의 문제, 아동의 자아존중감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신 병리적 문제, 대인관계에서의 폭력사용 경향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오혜정, 2004 재인용). 김혜련(1994)은 학대가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아동의 발달과정에 누적된 영향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은 부모의 자녀학대가 아동의 아동기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반사회적 행동, 정신건강 문제 및 대인관계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학대가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성인기 자녀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수과정의 심각성을 제기한다. 특히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수과정을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여아의 관계 속에서 살펴 보았는데 본 연구는 의의를 지닌다. 극단적인 예로, 최근 어머니가 자녀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회문제 속에서 어머니의 신체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녀양육은 어머니 한쪽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본 연구는 아버지보다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학대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들의 미래를 미리 예견해 볼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대중매체, 관련단체나 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보고하기 이전에, 일반 가정, 일반 학교,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의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1개 초등학교의 여아들과 그의 어머니만을 표집하였다는 점이다. 연구결과가 더 신뢰롭기 위해서는 다단계층화표본표집을 통해 전국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여아의 3세대 세대과정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부계쪽의 3세대 세대과정에 대한 후속연구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세대간 전수의 가족체계적 관점을 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사회학습이론 이외에도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가족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08. 2. 6). 울산서 실종 신고된 6살 ... '비정한 계모'에 맞아 숨져.
- 고성혜 (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곽금주, 문은영 (1993). 사춘기 남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93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31-40.
- 곽금주, 문은영 (1995). 심리적 특성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II): 청소년 이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 1, 1-11.
- 김광일, 고복자 (1989). 한국에서의 아동학대발생률. 아동학대예방협회.
- 김미경 (1988). 아동학대와 방임. 아동문제에 관한 연구보고서, 14, 37-72.
- 김정준 (1987). 교사가 인식한 영세지역 새마을 유치원 어린이의 학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련 (1994).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순현 (2000).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 성인자녀가족과 3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순현, 한성열 (1999). 가족분화개념에 대한 새로운 탐색: 단일차원인가? 다차원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 2, 209-222.
- 남순현, 한성열 (2001). 3세대가족의 가족분화 수준의 세대간 전수: 불안과 행복감의 매개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4, 625-640.
- 남순현, 한성열 (2002). 가족분화수준, 가족관계의 질 및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 2, 33-49.
- 남순현, 한성열 (2003). 신혼기 부분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결혼 후 친밀감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3, 505-523.
- 남순현, 최희경 (2005). 아동학대와 아동기 비행간의 관계. 호남대학교 논문집, 26, 1, 213-230.
- 노안녕 (1983).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4, 19-31.
- 연진영 (1992). 아동학대의 실태와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주연 (1996). 아동학대유형에 따른 또래수용과
인성특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미숙, 이윤로 (1999). 아내구타가정과 아동의
적응: 연구논점과 과제. 한국가족복지학,
5, 1-22.
- 조주연 (2004). 부모의 아동학대와 청소년의 비
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5).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최윤라 (1989). 학대받은 아동의 공격성과 감정
이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파이미디어 (2005. 12. 21). 어머니의 폭력에 폭
력으로 양갈은 한 아들: 폭력은 폭력을 낳
는다.
- KBS뉴스 (2007. 11. 19). 아동학대 5년새 2.5배
증가.
- Anderson, M. D. & Sabatelli, R. M. (1990).
Differentiating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Conceptual and operational challeng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8, 32-50.
- Anderson, M. D. & Sabatelli, R. M. (1992).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s:
DIF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89-101.
- Bandura, A. & Walters, R. H. (1963). *Social
Learning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Boszormenyi-Nagy, I. & Urich, D. (1981).
Contextual family therapy. In A. S. Gurman
& D. P. Kniskern (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W: Brunner/Nazel.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Y: J. Aronson.
- Burr, W. R., Day, R. D., & Bahr, K. S. (1993).
Family Scienc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Buss, A. H.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1, 343-
349.
- Carnes, P. (1989). *Contrary to love*. Center City,
MN: Hazelden Educational Materials.
- Cicchetti, D., & Aber, L. A. (1980). Abused
children abusive parents: An overstated case?
Harvard Educational Review, 50, 244-255.
- Erlanger, H. S. (1974). Social class and corporal
punishment in child-rearing: a reassessment.
American Social Research, 39, 68-85.
- Gavazzi, S. M. (1993). The relation between family
differentiation levels in families with adolescent
and the severity of presenting problem. *Family
Relations*, 42, 463-468.
- Gelles, R. J. & Cornell, C. P. (1990).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2nd e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Gelles, R. J. & Straus, M. A. (1988). *Intimate
Violence*. New York: Simon & Schuster.
- George, C. & Main, M. (1979). Social interaction
of young abused children: Approach, avoidance
and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0, 306-
318.
- Gurman, A. S., & Kniskern, D. (1991). *Handbook
of Family therapy*. NY: Brunner/Mazel.
- Herzberger, S. D. (1983). Social cognition and the

- transmission do abuse. In D. Finkelhor, R. J. Gelles, G. T. Hotaling, & M. A. Staus (Eds.), *The dark side of famili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Kaufman, J. & Zigler, E. (1987). Do abused children become abusive par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186-192.
- Kaufman, J. & Zigler, E. (1989).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 abuse. In D. Cicchetti and V. Carlson(Eds.),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mp, A. (2001). 가족학대 · 가족폭력. 나남출판.
- Landes, A., Siegel, M. A., & Foster, C. D. (1993). *Domestic Violence: No longer behind the curtains*. Wylie, TX: Information Plus.
- Loos, E. & Alexander, P. C. (1997). Differential effect associated with self-reported histories of abuse and neglect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40.
- Martin, J. A. & Elmer, E. (1992). Battered children grown up: A follow-up study of individuals severely maltreated as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16, 75-87.
- Milner, J. S. & Crouch, J. L. (1993). Physical of child abuse. In R. L. Hampton, T. P. Gullotta, G. R. Adams, E. H. Potter, and R. P. Weissberg(Eds.),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National Center for Child Abuse and Neglect (1997). *Study findings: Study of national incidence and prevalen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1993*.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Sabatelli, R. M., & Anderson, S. A. (1991). Family system dynamics, peer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Family Relations*, 40, 363-369.
- Smith, R. (1995). What to do with sexual abusers? *NASW News*, 40, 8, 3.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eraction 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1, 75-88.
- Wisdom, C. S. (1989). Does violence beget violence?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106, 3-28.

1 차원고접수 : 2009. 05. 04.

수정원고접수 : 2009. 09. 01.

최종게재결정 : 2009. 09. 03.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hood aggression o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and family differentiation levels among three generations of mothers and daughters

Nam, Soonhyeon

Dept. of Social Welfare Honam University

Pathological interact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cause negative results such as marriage break ups, child abuse and psychological illness due to distorted relationships with parents. Just as violation begets violation, abuse from parents during childhood is very likely to continue as abuse by their own children when they grow up. Therefore, this research intends to examine the process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hood physical abuse and family differentiation levels. It will do so through the process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between three generations mothers and daughters through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hood aggressiveness.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are 220 pairs of elementary school 5th and 6th grade girls and their mothers, and the research survey period is from Sept. 16 to Oct. 31, 2008. By reporting the relationships of girls to their mothers, and that of mothers and grandmothers, it was possible to explore the influence of past between mother and daughter relationship experiences. In doing so, this research explored the level of family differentiation, childhood physical abuse experiences, childhood aggressiveness and childhood misconduct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over three generation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between mothers and daughters over three generation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hood aggressiveness through the AMOS statistical program, it is shown that childhood aggressiveness has a mediating effect on childhood physical abuse when the abuse affects girl's misconduct for three generations rather than only for two generations. In other words, girls that experienced childhood abuse do not directly express violative action in response to the physical abuse by their mothers, but physical abuse by mothers tends to cause problematic behavior by being internalized as childhood aggressiveness.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 of childhood abuse is a serious issue, and further argues that child abuse not only inhibits healthy development of the child but also probably repeats the vicious cycle that leads to abuse of the victim's own children when they grow up.

Key words : three generation, childhood physical abus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 family differentiation level, childhood aggressiveness, childhood misconduct